

온라인쇼핑 자카르타 신선식품시장에 도전장



Why shop with us?



□ 주요내용

-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젊고 도시에서 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시로 구입하는 신선식품 온라인쇼핑 시장이 매년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보여 2020년에는 미화 1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- 자카르타에 설립된 식품 유통 전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해피프레시(HappyFresh)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“인도네시아에서 중상류층 소비자들이 온라인 식품 쇼핑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썼다.
- 이 업체는 아시아 지역은 똑똑해지는 식품 소비자, 소득 증가, 빠른 도시화, 스마트폰 보급 확대, 광대역 인터넷망 확산 등이 진행되고 있어 온라인거래 잠재력이 크다고 보았다.
- 또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 대도시는 교통정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

서 소비자들이 식품 구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.

- 해피프래시는 현재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우유와 유가공품 및 달걀이고,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외국인들은 토마토, 스파게티, 닭가슴살 등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썼다.
- 해피프래시는 싱가포르 Vertex Venture와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Sinar Mas Digital Venture가 지난해 자본금 1,2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싱가포르 등에서 영업하고, 인도네시아에서는 랜치마켓과 롯데마트와 협력한다.

□ 시사점

최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해외투자 지분 100% 허용을 검토 하는 등 여건 또한 좋아지고 있어 온라인을 활용한 일반 소비재 판매에서 신선 식품 판매 까지 전자상거래 업체가 생겨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자료 : Daily Indonesia(2016-02-02)